김홍업, 재보선 무소속 출마 결심

시민사회단체 "출마땐 실력행사"… 정치권 논란일 듯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전 아태재단 부이사장)씨가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내달 25일 치러지는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김씨는 12일 출마 지역인 무안·신안을 방문한다.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출마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출마를 결정함에 따라 무안·신안 보궐선거는 지역은 물론, 정치권의 뜨거운 논란거리로 부상할 전망이다.

김씨의 핵심 측근은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12일 김씨가 무안·신안을 방문, 여론을 청취하고 하의도에도 들릴 예정"이라며 "실질적인 보선 행보에 나서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 측근은 "일방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기보다는 지역 원로와 친척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여론을 듣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번 주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당초 김 전 대통령은 출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50이 넘은 아들이 홀로서기를 통해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하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홍업씨도 11일 동교동을 방문, 출마 인사를 드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주당 공천 신청 여부와 관련, 이 측근은 "지역 인사들과 정치권 인사들이 민주당 출마를 권하고 있으나 김씨는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마음을 굳힌 상태"라며 "민주당으로 출마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김 전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누를 끼친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선거 결과를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지면 되지만 민주당 공천을 받게 된다면 당은 물론 김 전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선을 앞두고 민주세력 대통합이 화두인 점을 감안한다면 민주당 후보보다는 무소속 출마가 활동 반경이 넓고 경우에 따라 통합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신중식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은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후보 공모를 받을 예정"이라며 "김홍업씨 공천과 관련, 여러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보다 큰 그림을 위해 전략적 공천지구로 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여지를 남겼다.

김씨의 보선 출마 행보에는 갖가지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 52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8일 "비리에 연루된 김씨의 출마는 호남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라며 김씨의 출마가 현실화된다면 실력행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씨에 대한 지역의 여론도 심상치 않다. 무안·신안 지역이 김씨의 고향이지만 정치적 기반 등을 고려할 때 별다른 인연이 없다는 점에서 김 전 대통령의 후광만 믿고 출마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4·25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의 범여권 연합공천 전망도 밝지 않다. 열린우리당에서야 연합공천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당 지지도를 고려할 때 큰 정치적 의미가 없다.

정치적 결론이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씨가 출마하면 민주당 후보와의 한 판 승부도 피할 수 없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난타 북 치는 정동영 전 의장 11일 오후 광주시 5·18기념문화관에서 열린 광주·전남통일부국포럼 창립대회에 초청강연차 참석한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난타' 공연팀의 북을 쳐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남북정상회담 상반기 성사돼야"

정동영 전 의장 '광주·전남통일부국포럼'서 밝혀

정동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은 11일 "남북정상회담은 상반기 중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통일부국포럼' 창립식 초청강연을 통해 "대선이 있기 때문에 우회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에서 우리는 아웃사이더로 전락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과 북한이 절대 손을 잡을 수 없다고 말한 보수 논객들도 최근의 북미합의 이후 조용하다"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초당적이고 범국민적인 지지 속에서 올 상반기에 (남북정상회담을) 실현시켜 비핵화, 평화체제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장은 "한반도 대운하는 협소한 사고이고 낡은 비전"이라며 "유력한 분이지만 장관 청문회도 통과할 수 없는 분"이라며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비판했다.

특히 정 전 의장은 "광주가 수구세력들의 손을 잡아서는 안된다"며 호남의 이 전 시장 지지에 대해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네오콘(신보수주의자) 세력이 퇴각하는 시점에 그동안 평화를 포장한 수구냉전 세력이 득세하는 것은 한반도를 교착상태로 빠뜨릴 수 있다"면서 "한반도의 전쟁종식과 평화구축은 역사의 사명이자 소명"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발전을 표방한 '통일부국포럼'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인사 등이 참여하는 정 전 의장의 외곽 지지 세력이다.

이날 창립식에는 양형일·강기정 의원, 강정채 전남대 총장, 오장환 광주여대 총장, 이만영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고재유 전 광주시장, 최형식 전 담양군수 등 1천200명이 참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DJ "범여권 통합 반드시 필요"

한명숙 전 총리 예방때 재차 언급

연말 대선을 앞두고 범여권의 통합신당 추진작업이 어지럽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11일 범여권 통합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동교동 자택에서 지난 7일 퇴임한 한명숙 전 총리의 퇴임인사를 겸한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지금 범여권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 선거가 있어 중요한 시기"라며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고 한 전 총리가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50년대부터 양당체제를 지지했다"며 "흩어진 힘을 한데 모으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13 베이징(北京) 6자회담 합의에 대해 "한국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맺어 기쁘다"며 노무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범여권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한 전 총리는 이날 예상 밖으로 김 전 대통령의 환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1시에 시작된 면담은 당초 정오 전에 끝날 계획이었지만 김 전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오찬을 제안, 식사 후 티타임까지 포함해 무려 3시간 가까운 면담이 이어졌던 것.

이는 한 전 총리가 2000년 김 전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 민주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고 국민의 정부 시절 여성부 장관을 맡는 등 개인적 인연 외에 무난한 총리직 수행으로 대선후보의 반열에 오른 한 전 총리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임동욱기자 tuim@

한명숙 전 총리가 11일 첫 외부일정으로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연합뉴스

정운찬 "'통합신당과 교감' 해석은 부적절"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11일 통합신당추진모임 김한길 의원과의 지난 3일 회동과 관련, "통합신당모임과 상당한 교감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이날 김 의원과 회동 이후 통합신당모임과 상당한 교감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과 관련, "김 의원과는 지난해 두어 차례 만난 적이 있었고, 이날은 아무런 사전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만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장은 "당시 무슨 대화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겠다"며 "다만 김 의원이 여러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완곡하게 부정적 견해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학기까지는 강의를 계속하겠다"며 빨라도 신학기가 끝나는 5월말까지는 교수로서의 본분을 지킬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학기가 끝난 후 정치참여를 결정하면 대선 일정상 너무 빠듯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번 학기까지 강의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사회에 봉사하는 길이 무엇인지 정말로 가운데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참여)할 가능성과 안할 가능성이 동시에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정 전 총장과 가까운 한 지인은 김 의원과의 회동에 대해 "정 전 총장의 장점 중 하나가 참신성인데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며 "두 분의 만남이 보도된 후 편한 심정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생정치준비모임' 오늘 광주 순회토론회

'민생정치준비모임'이 12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민생평화개혁세력의 위기 진단과 나아갈 길'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천정배 전 장관이 이끌고 있는 민생정치준비모임은 민생 대통합신당 창당을 위한 지역기반 조성과 사회적 대연대를 복원하기 위한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오는 4·25재보선 전까지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 매주 1회씩 순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이날 광주에 이어 대구·경북, 부산·경남, 대전·충남, 제주, 강원, 경기, 서울 등의 순으로 개최된다.

민생정치준비모임은 천 전 장관을 비롯한 김태홍·김태일·우윤근·이계안·이종걸·정성호·제종길·최재천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모임의 광주지부 성격인 광주지역 민생포럼준비모임에는 신용호 전 광남일보 사장, 조국현 전남대 총동창회 전 회장, 김용억 전 광주시의원, 이상갑 변호사 등이 참여중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남북 정상회담 4월 이후 논의"

이해찬 전 총리 밝혀

북한 방문을 마친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10일 "북한측과 남북 정상회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그러나 초기 단계 이행조치 기한인 60일이 끝나는 오는 4월 중순 이후에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베이징 주재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사가 아니고 당 차원에서 방문했기 때문에 정상회담 자체는 논의의 핵심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EBS교육방송
저자직강
출제위원급 최고 교수진
전국수석 배출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본원출신 송은영님 96.7점
4월 2일 첫진도 개강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주택관리사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원출신 143명 합격!
합격률 1위
광주고시학원
본원 ☎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뒤
첨단점 ☎ 971-0002 빅마트 첨단점 옆 광주은행 4F

2007년(上) 제17기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모집
■모집요강
• 모집기간 : 2007년 2월 5일(月) ~ 3월 10일(土)
• 개강일시 : 2007년 3월10일(土) 09:00, 서울·광주·대구·본원
• 지원대상 : 20세 이상 직장인, 대학생, 개정주부 등(학력제한없음)
• 모집인원 : 1단계 과정(초급자 20명), 2·3단계과정 분할운영(각 10명)
• 수업기간 : 2007년 3월 10일(土)~2007년 6월 23일(土) 14개월, 15주간
• 수업시간
▶ 주말반 : • 오전반9시~14시 • 오후반:14~19시 → 주 1회 수강
• 수 강 료 : 1~4 단계 각 30만원, 2·3단계 평일학급 10만원 범도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763-6 호반2차상가 2층 (첨단단지)
▶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수료 및 졸업후의 특징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종별 및 연수방법

자격종별	연수단계	교육과정 (○)전공필수과목 (□)지율활수과목	교육과정 (◇)전공선택과목 택일	이수시간 (누계시간)	모집 및 이수방법
한자·한문 2급 지도사	1단계 과정 (준3급 지도사 과정)	○四字小學 ○推句 □漢字級數檢定 4급	◇學語集 ◇基礎部首	90시간 (약4개월)	일반모집
	2단계 과정 (준2급 지도사 과정)	○童蒙先習 ○明心寶鑑 □漢字級數檢定 3급	◇漢文法 ◇擧業要訣	90시간 (누계 약8개월)	과정진행 일반편입(전형)
한자·한문 1급 지도사	3단계 과정 (준1급 지도사 과정)	○大學 ○中庸 □漢字級數檢定 준2級	◇韓國漢文學(選讀) ◇書經	90시간 (누계 약1년)	과정진행 일반편입(전형)
	4단계 과정 (1급 지도사 과정)	○論語(上) ○孟子(上) □漢字級數檢定 2급	◇周易(韓國) ◇新字典法	90시간 (누계 약1년반)	과정진행

제 7회 전국 한자한문 3·2급 지도사 자격 검정시행 공고
• 일 시 : 2007년 7월 7일(土) 15:00 • 장소 : 광진 이그잼고시학원 및 전국시도본부
• 접수기간 : 2007년 5월 28일~6월 16일(3주) • 응시자격 : 국민누구나 응시가능
• 응시교과 : 3급지도사 : 1단계 70문제 / 2급지도사 : 1,2단계 100문제
●시행 및 주관 : 한자한문 지도사 자격인준회 ●후원 : (사)한국한문교육연구원, (사)국어고전문화원
광주지역본원 062)971-4747, 972-4747, FAX.973-4747 (이)973-4477, 휴.017-610-9393, 017-609-9393

국비무료모집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과정)
주택관리사·사무자동화·정보화기초1,2

재직자과정(교육기간)	교육내용(교육시간)
주택관리사(월~토) 교육기간 : 4/2~6/2	민법, 회계원리, 관리법규, 관리실무, 시설개론 (19 : 00~22 : 30)
주택관리사 주말반(토, 일) 교육기간 : 5/5~7/1	민법, 회계원리, 관리법규, 관리실무, 시설개론 (토14 : 00~18 : 00, 일 10 : 00~17 : 00)
사무자동화(월~금) 교육기간 : 3/16~4/25	엑셀, 엑세스, 파워포인트, 사무자동화실기 교재무료제공
정보화기초1 교육기간 : 3/19~4/4	윈도우, 인터넷, 문서편집활용 교재무료제공
정보화기초2 교육기간 : 3/19~4/6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 활용 교재무료제공

기 타 사 항
■모집대상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 중인 재직근로자
■기타사항
수료후 100% ~80%환급
■접 수
수강절차 : 훈련상담➡훈련수강신청서 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버스노선
• 전남여고➪봉선37, 지원52, 지원54, 금남58, 두암81, 518
• 예술의 거리 입구➪풍암07, 금남56, 대촌70, 대촌170
• 문화전당역(구 도청)➪진월07, 첨단09, 지원45, 지원51, 지원52, 지원53, 금남55, 금남56, 금남57, 금남58, 금남59, 풍암61, 문흥80, 두암82, 518, 1187
◈ 노동부 지정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
현대직업전문학교
☎224-4560, 224-4580, 232-1088
★위치 : 전남여고 건너편 김재규 경찰학원 3층 ★http://www.hdedu.co.kr

국가직/ 지방직 시험대비 www.mdgosi.co.kr
9급공무원
문제풀이반 3월 5일 개강
김종규 행정학 문제풀이 특강
• 2007년 4월 5일(목), 4월 12일(목)
• 300명 선착순 접수, 수강료 60,000원
합격당락 적격선택 중요
공무원 합격! 쉽고 빠르게!
▶교정공무원 ▶사회복지직
▶소방공무원 ▶보호관찰직
▶세무공무원 ▶교육행정직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뒤 222-4560

www.kjkimyoung.co.kr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성공신화는 계속된다
2008년 편입시험 대비반 개강(기초과정)
= 개강 : 3월5일 =
김윤신 초등교육과정 개강3월5일(월)
의/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 대비반 개강 3월5일
개설과목 : 영어/언어추론/생물/화학/유기화학/한문/한의학
김영대학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 227-8088